

# “욕심 버리고 바른 안목 키우세요”



사찰서 만나다 기획의 다섯번째 주인공인 구자선 (주)자연과사람 회장을 12월 3일 조계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자CEO의 역할, 경영의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었다.

**최** 근 ‘사찰경영’이라는 말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EO, 사찰서 만나다’ 기획의 다섯번째 주인공인 구자선 (주)자연과사람 회장을 12월 3일 조계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자CEO의 역할, 경영의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었다.

## 구자선 ‘자연과 사람’ 회장

### ▷지금 있는 자리가 소중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필사적으로 살아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통하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명예회장의 철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자세야말로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라는 확신에 찬 경영은 오늘의 교세라그룹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주)자연과사람의 구자선(70·사진) 회장도 누구보다 ‘오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CEO로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지금 있는 이 자리, 또 이 순간에 희망이 있다’는 소신경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1960년 후반 맨손으로 (주)태우주택을 일구었던 구회장의 경영자로서의 삶은 힘든 경제여건 가운데서 견실한 노력으로 일관했다.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5년전 (주)태우주택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업종인 요식업체 (주)자연과사람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탓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그런 기업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의 기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진정 행복한 일입니다.”

대기업과 겉모양 좋은 회사만을 선호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꼬집는 구회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다. 일의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다시 뽑으면 된다”며 직원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회사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경영자는 중요하고 말단 직원은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영



3일 기도 정진 후 회사 과감히 처분 요식업체 설립하고 불교 경영관 도입

자들, 말단직원이든 톱나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영자는 직원의 가치를 살려주는 경영이 필요하고, 직원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물러날 줄 알아야 기회 온다

구자선 회장은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믿었지만 불심은 깊지 못했다.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었다.

“한참 사업이 어려울 때 불교를 새롭게 접하게 됐고, 보다 다르게 보는 안목이 열렸다. 그것은 30년 세월과 땀이 담긴 회사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영주 부석사에서 3일 동안 기도정진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무아의 경지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불교는 진짜가 아니라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간 구회장은 갖고 있던 개인재산까지 대부분 매각해 빚을 정리했다. (주)자연과사람 회장으로 자

리를 옮긴 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CEO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불교와 경영에 대해 공부하며 경영관도 다시 세웠다. 그것은 바른 생각과 지금 있는 자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닌 경영자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겨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현상과 사물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으면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제 경유가 그랬어요.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안목도 없었던 것입니다.”

### ■구자선 회장은

1937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구자선 회장은 (주)태우주택을 설립해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주)자연과사람 회장,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서울 조계사 신도회 고문 등으로 활동중이다. 법명은 일타 스님으로로부터 받은 덕암(德庵).

## 분단의 경제학 (22)

### 세간·출세간의 지혜

인간의 경제 행위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은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경제학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적이거나 쾌락적인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할 때 진지하게 경제학의 도움을 요청한다.

자면 세간지와 출세간지가 어찌 분별되는 것이겠는가. 세간지와 출세간지는 상호 원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교가 출세간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학과 같은 세간의 지혜를 애써 무시한다. 나아가 경멸하고 비하한다.

우리는 세간에 살면서 출세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간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간의 올바른 삶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출세간으로 갈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세간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출세간을 경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 불교계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상당 부분 경제학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불

### 경제는 정신적 목표 추구서 무시할 수 없는 수단

### 세간의 바른 삶 살아가 출세간으로 갈 자격 갖춰

### 피안의 목표 설정한 경제학, 한국불교에 도움될 것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만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등 한층 치열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신적,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도 경제학은 여전히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비합리적으로 되고 경제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혜를 필요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심지어 해를 끼친다고 집어 던져 버린다.

정신적, 종교적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세간의 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도 있다.

경제학이 쌓아올린 것은 세간의 지혜이다. 반면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이다. 출세간의 지혜는 세간의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시비를 가리

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적 사고와 지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세간지로 배척받아 증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해서 몹시 마음이 아프다.

성철 스님이 노년에도 현대물리학에 관한 책을 손에 쏴내려놓지 않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세속의 오역을 경계하셨던 스님이 입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순간까지도 세간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세간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경제학은 우리가 피안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나뭇배에 불과하다. 어느 곳이 피안인지를 우리에게 가리켜주는 않는다. 경제학은 지극으로 이끌어주는 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안으로 정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한 경제학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한국 불교계에 천군만마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구병진(경영학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상품문의: (02)732-1520

**■희담석 천주**

‘희담석 천주’는 몸의 나쁜 기운을 머금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희담석 알갱이 10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목과 팔이 늘 빠근한 불자, 피로가 누적되거나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직장인들에게도 좋습니다. 희담석을 하루 1~2회 물에서 내려놓으면 그때까지 머금고 있던 나쁜 기운을 내뿜는 후 원래의 상태로 되살아납니다.

가격 : 30만원

## 종도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창종 44주년 종도대회

귀의 삼보하옵고  
진리의 새벽을 여신 원호성사를 종조로 모신 본 종단은 종도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창종 44주년 종도대회를 봉행하오니 종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50(2006)년 12월 15일(금) 오전11시  
◆ 장소 : 그린타워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8-101)  
☎ 042) 256-1557~8

### 대한불교원효종 창종 44주년 종도대회

중 명 : 임시종정 벽 송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향 운  
부 위원 장 : 규정원장 흥 인 합장

문의처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전화 02)735-0501~2 / 팩스 02)736-3509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기생을 모집함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b>1년 교과목</b>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명조(동국대학교) · 김상현(동국대학교) · 표주스님(동국대학교) · 김상영(승가대학교)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 · 정업스님(승가대학교) · 보각스님(승가대학교)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학교)
<b>2년 교과목</b>	불교학개론 · 선사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규(동국대학교) · 최홍석(금강대학교) · 윤영수(문화재단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학교) · 활안스님(금강산원종계) · 최봉수(동국대학교) · 주명철(동명대학교)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8명: 주2년 · 종단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12월 15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주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제문화학과)	동산불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장제문화학과 : 2007년 3월 6, 7, 8일 개강
-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부다가이서점 051)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